

# 잘 나가는 기업에는 특별한 인재교육 프로그램이 있다

## 이색 사내교육 프로그램 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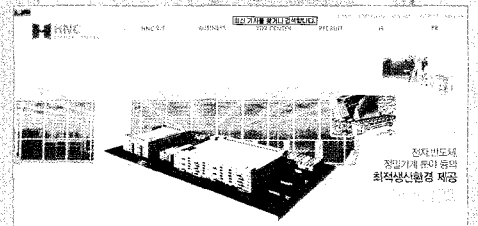
### 잘 읽은 책 한 권이 기업 성장 이끈다

#### ●● HNC '독서행사 Biz writing'

크린룸 전문업체 HNC(대표 임재영, www.hnceng.com)는 올해로 11년째 특별한 독서행사를 이어오고 있다. HNC의 독서행사는 1998년 창립 이래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왔으며, 경영진이나 사원 모두의 회사의 발전과 이익을 위해 HNC만의 소통하는 기업문화를 형성하는 특별한 전략이다. 독서프로그램의 최대 장점은 최신 경영트렌드 및 경영철학 등을 공유하기 위해 많은 비용을 들여 직원들을 교육하지 않아도 책 한 권으로 충분한 메시지를 공유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토론, 독후감 작성 등의 방법으로 직원들 스스로가 능동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기회로 삼을 수도 있다.

HNC의 임직원들은 "Biz writing 행사(독서행사)가 책을 통해 기업의 경영철학과 이념, 기업의 비전과 혁신의식, 인재상 등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자 문화를 형성하는 중요한 수단"이라고 이야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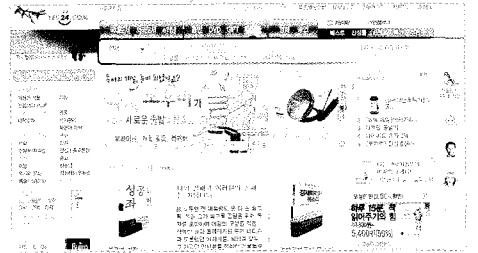
모든 임직원들은 매 분기별로 선정된 책을 읽고, Biz writing 행사(독서행사) 및 독서 토론회를 진행한다. 지정된 도서를 주제로 부서별로 워크숍을 가질 정도로, 책 한 권에 HNC 전 직원이 할애하는 시간은 상당하다. 또한 회사에서 직원 교육과 조직문화 형성을 위해 도서경영에 투자하는 부분도 크다.



## 기초부터 차근차근

### ●● 예스24 '신입사원 교육'

예스24(대표 김동녕, [www.yes24.com](http://www.yes24.com))의 신입사원은 출근할 때 정장 대신 편한 옷차림을 입는다. 예스24만의 특별한 신입사원 교육 때문이다. 예스24의 신입사원들은 첫 출근을 할 때 여의도에 있는 본사가 아니라 파주에 위치한 물류센터로 간다. 예스24를 통해 주문한 상품이 어떻게 포장되어 고객에게 전달되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회사의 방침에 부응하기 위해서다. 신입사원들은 1주~2주 동안 물류창고로 출근해 직접 책을 찾아보고 포장하는 교육을 받는 등 인터넷 서점의 기초업무를 차근차근 배워 가고 있다.



## 퇴근하기 전 지식 한 잔

### ●● (주)한우리열린교육 '퇴근 전 독서 권장 프로그램'

(주)한우리열린교육은 직원들이 퇴근 30분 전부터 매일 6시간씩 자유분방하게 책을 읽는 독서 시간을 마련해 직원들의 책을 통한 회사의 발전과 자기계발을 돕고 있다. 한우리열린교육은 회사 내 도서관을 마련해 2만여 권의 도서를 비치하고 있으며, 독서시간이 아니라라도 직원이면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도록 해 독서 활동을 장려하고 있다. 이러한 독서 권장 프로그램의 정착 이후 직원들은 따로 시간을 내 서점이나 도서관을 찾지 않아도 쉽게 회사에만 오면 책을 읽을 수 있게 됐다. 한편 한우리열린교육은 정기적으로 독서경영 시간을 통해 직원들 간의 업무교류는 물론 임직원과 자연스럽게 토의 토론 할 수 있는 자리도 함께 마련하고 있다.



## 영어공부로 여는 활기찬 아침

### ●● MCC이민법률법인 '영어 공부하는 스트레칭 시간'

MCC이민법률법인(하지옥 대표, [www.mcc.co.kr](http://www.mcc.co.kr))은 매일 아침 '모닝쇼'를 통해 직원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다. '모닝쇼'는 매일 아침 직원들이 다 함께 모여 국민체조, 요가, 스트레칭 등 건강 체조를 함께 하며 바쁜 직장생활로 놓치기 쉬운 건강을 챙기고, 직원들의 단합을 도모하고 있다. 최근에는 영어로 진행되는 스트레칭을 통해,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영어도 익히고 운동도 하는 등 이색적인 방법으로 모닝쇼를 진행하고 있다.



또 회사 내에 '마일리지 제도'를 도입해 고객 칭찬 시, 사내업무 향상을 위한 제안, 주말 추가 근무 및 야근 근무 등에 마일리지를 지급해 누적된 점수 내에서 휴가 또는 현금 지급이 가능해 직원들의 반응이 뜨겁다. 한편, MCC는 '이노베이션 콘테스트'를 통해 회사에 건의사항 등 직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모아 우수한 아이디어를 내는 직원에게 포상을 주는 등 직원들의 복지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 대표가 되는 꿈을 펼쳐라

### ●● 티맥스소프트 '대표가 되는 꿈꾸기'

티맥스소프트(대표 박종암, [www.tmax.co.kr](http://www.tmax.co.kr))의 신입사원은 대표이사가 되어 볼 기회를 얻는다. 지난 티맥스 박종암 대표는 지난 9월에 입사한 신입사원들을 대표 집무실로 초청해 대표이사의 자리에 앉아 자신의 미래를 상상하며, 꿈을 발표하는 시간을 갖게 했다. 신입사원들이 대표이사라는 큰 꿈을 꿀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기 위함이다. 평소에도 인재육성에 관심이 많은 박 대표는 참가한 신입사원 모두에게 난을 선물하며 "난을 키우면서 기다림과 책임감을 가질 수 있길 바란다"는 조언을 했다.